

■ Summary ■

## Approach to Modern Architecture

with revaluation of functionalism as its center

by Yung Bai Im

Architecture is the art of building and must possess commodity, firmness, and delight; in other words, buildings become architecture when distinguished by adequate provision for their intended use, by sound construction, and by a disposition of their parts that will satisfy the eye and through it, express in visual form the nature of that particular building. Virtually all architecture deals with the enclosure of space for human use. Almost always a building calls for a number of areas different in size and shape and adapted to varied purposes. These must be so organized that they provide adequate accommodation and convenient access from one to another.

In design, the principle is that the purpose and structure of any object should be apparent, and that it is aesthetically incorrect to attempt to conceal them. It holds that suitability, efficiency, usefulness, and economy should be the prime aims in designing, and that decorative appeal and surface ornament should be secondary. Functionalism is the characteristic which most definitely identifies contemporary architecture and interior decoration.

Contemporary architecture is growing more suited to its modern background. It is flexible and capable of being fitted into a variety of landscape, and it can be adapted to suit any degree of elegance or simplicity and any style of living. The modern architect uses a greater variety of materials than ever before. A architect

creates odd angles and different floor levels, even using steel beams as part of the ceiling decoration; windows are made larger and placed for view, light, and 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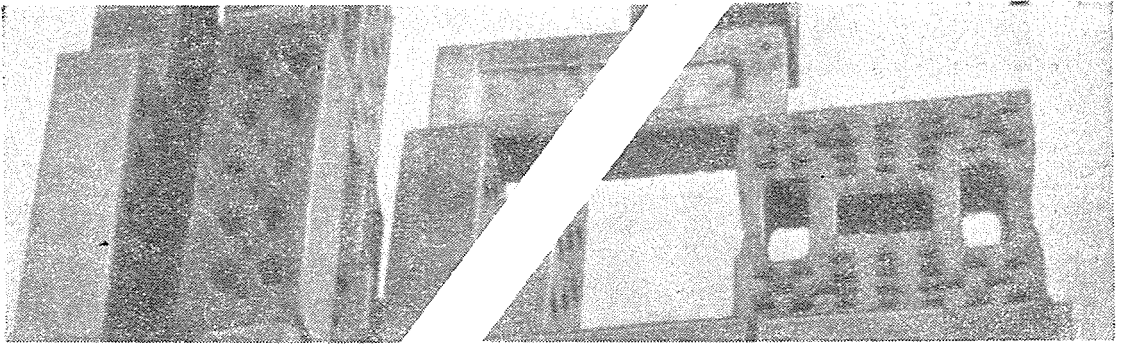
For the modern house—with its increased construction costs, lack of domestic help, and mounting complications in living—it is essential that every room be as functional and as flexible as possible. A room is no longer of necessity a square or oblong box; it may be divided by sliding doors or curtains, or it may wander around a corner into a bay.

Interior decoration—flexible planning often results in irregularity in room shapes, lack of symmetry in furniture grouping is a characteristic of contemporary interiors; yet the room is organized so that it is neither restless nor incomplete. Patterns are carefully planned to be in accord in scale with the areas in which they appear, and large plain areas are used for contrast.

Architecture must combine aesthetic values and utility; if not, the only result will be frustration and sterility.

To this end there is growing evidence of a revival in the restrained use of ornament to relieve the depressing bare surfaces which have predominated.

The newest contemporary designs, grounded in functionalism, show more refinement of line, more simplicity of form, and more freshness in decorative ornament than before.



## 현대 건축의 입문

기능주의의 재평가를 중심으로

임 영 배

원래 architecture (건축)란 말은 회람어의 architekton, 나전어의 architectura에서 나온 말로 archi는 「대」요 tectura는 「기술」을 의미한다. 고대로 훌륭한 기술뿐 아니라 예술적으로도 고전적 형식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만이 건축이라고 인정되어왔다. 그러나 18세기의 산업혁명 이후 건축에 대한 요구는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즉 오늘날에는 교량이나 도시까지도 포함하여 지상에 조영하는 구축물을 그 사회적 필요물로서의 목적과 기능에 충분히 만족하고 나아가서는 다른 예술과 같이 조형상의 감동을 지니겠끔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구조하는 기술 또는 구조물이다. 그러므로 건축물의 유구(遺構)는 「자연의 공간」을 배경으로 한 가장 생생한 인류의 과거장(過去帳)이요 인간의 정신면과 현상면의 생활 및 내용을 반영하여 주는 인간 공간이다.

이 「인간의 공간」인 건축은 물질적 욕구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욕구의 충족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단순한 구조상의 절약이나 기능상의 완전성도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공간개념의 목적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은 언제나 다같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건축이 인간의 생활공간으로서 긴 역사의 흐름 속에 오늘날 우리들이 당면한 상황은 어떤 것인가?

우선 우리들 주변의 건축에 눈을 돌려 볼때 맨먼저 들어오는 영상은 무질서한 도시의 광경이다. 여기에는 자연의 배경마저도 망각한 듯한 인간의 무리가 소용돌이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일보 들어서서 보면 거기에 철과 유리, 콘크리트에 의한 대건축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주택문제의 심각한 현실을 「인간의 공간」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주거에 들어박힌 대중의 모습을 본다. 적어도 현대

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기점으로 할 때 가장 가깝게 접사(接寫)된 현대건축이 이러한 상황이니 이런 현실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앞의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서는 좀 다른 각도에서 쫓점을 맞춰 볼 필요가 있다.

Bauhaus의 조직자인 Walter Gropius(1883~)에 의하여 International Architecture 라고 하는 건축사상이 제기(1925년)된 것은 유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서구적 세계에 한정되어 있었다.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 있어서의 건축동향을 포괄하지 못하고 International 운운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 건축 조형이념은 1950년의 UN Building을 기점으로 세계 각지에 정착하였다고 사료된다.

Gropius가 제기한 이념은 건축창조에 있어 민족적, 전통적 계기를 배제하였던 점에서 근대주의의 사상 그것이었으나 그 모체를 지지하고 있었던 것은 당시 건축이란 말로 불리워진 기계생산의 energy였다. 18세기 중엽에 발원한 산업혁명의 조류는 19세기를 통한 기술적 축적과 개척자들의 노력을 거쳐 20세기의 초두에는 건축의 공간개념에 변혁을 가져 오기까지에 이르렀다. Sigfried Giedion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변혁은 1910년에 있어서의 Cubism(입체파)의 출발과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근대운동의 조류 속에서 건축가들은 철, 유리, 콘크리트라고 하는 물질과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이 처음으로 가능하게 된 것을 소재로 하여 새로운 공간의 탐구에 지향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기성의 양식, 기성개념의 속박에서 탈출하여 그들의 시를 건축이란 말로 표현하려 하였을 때 그 image의 다양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방법상의 공통

점을 의식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곧 기능주의 (Functionalism)인 것이다.

기능주의가 건축사상 내지 건축철학으로서 황금시대였고 가장 전투적(戰鬪的)이었던 것은 1920년에서 30년대에 걸쳐서였다. 즉 Le' Corbusier나 Gropius의 Bauhaus가 등장한 때이다.

기능주의는 "Form follows function"(형태는 기능에 따른다) 고한 Louis Henry Sullivan (1856~1924)의 말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건축의 실체는 기능을 추구하여 나가면 자연 아름다운 형태가 솟아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기능주의란 건축창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

기능이란 개념은 원래 생물학에서 사용된 말이다. 생명을 물리적으로 분석하여 나가면 많은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전체형을 이루고 있는 때 즉 생물에 있어서 각부분간에는 functional한 상관성이 있고 이것들이 치밀하게 있을수록 생명력은 강하다.

그러나 실제 기능주의의 방편이요 도구인 분석적, 분석적 방법은 생체요, 영체인 인간의 조형과정에서 어떤 의의를 갖는 것일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물질적 과학성(이성적)이요 정신적 인간성(감성적)인 것은 확실히 못된다. 건축의 조형에 있어서 architect가 많은 요소를 결합하여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기능분석을 완료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어떤 하나의 형태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의 어디에선가 비약하여 전체의 image를 선회하여 버린다. 이것은 인간의 조형활동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수명이고 architect가 이 비약의 일순에 있어서는 완전히 예술가인 것이다. 이와 같이 형태의 image를 일순에 취하여버린 architect의 특성은 강점임과 동시에 또한 약점이다. 그러나 생체인 인간으로서서는 어쩔 수 없는 창조 과정에 있어서의 감성적 개념이요, 영감의 세계이다.

그리고 비약의 일순에 있어서는 기능주의는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 창조에 있어서 조형활동의 동력은 오직 일순의 비약인 표현의욕(Kunstwollen)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돌이켜 생각하면 과학적인 분석적 방법은 현대문명의 기본적 방법임을 의심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근대의 합리적인 분석적 방법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한도를 벗어나 단순한 통일을 파괴하여 버렸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분석적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기능의 결과에서 이성적 인식만을 만족하여 버린 결과다. 다시 말하면 생체인 인간의 감성적 인식까지를 포함한 분석된 기능의 재통합과정을 거쳐야하는 총합을 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요즘 곧잘 functionalism의 죄요, 중말이다 라

는 등 재평가가 논하여지고 있으며 사회문제로까지 번져가고 있다.

사회학자 김대환(金大煥)씨는 "소의의식과 현대사회의「메카니즘」"이란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란 본래 인간의 생활을 풍부히 하고 행복하게 하자는데 목적의 일부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화와 나아가서는 자동화 까지에 이른 기술의 고도한 향상은 인간노동에 대신하여 기계노동이 나타났으며 이는 해고의 지위에 대한 기술체계로부터 소외당하지 않을까 하는 갈등과 불안을 가져오게 했다. 기술의 진보에 따른 「오토메이손」화, 「트랜스퍼머킨」(transfermachine)에 의한 기계공업의 연속화, 자동제어 방식에 의한 화학공업에 있어서의 「프로세스 오토메이손」(process automation), 전자기계에 의한 사무노동의 기계화 등으로 노동자는 노동에 흥미를 감소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은 소외되고 고립화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설비의 기계화, 작업방식의 표준화 그리고 작업의 세분화 등에 따라 그들 스스로가 기계를 움직여 생산에 직접 참가하는 주체라기 보다 오히려 설비와 기계의 부속품처럼 「로봇트」화하고만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인간의 최고 지혜와 기술을 짜낸 결정이라 할 수 있는 원수목은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불안과 위기에 몰아 넣었으며 그것을 뒷받침으로 하는 전쟁은 우리를 여러가지 갈등과 혼란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러나 이것을 탄식만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역사는 필연적으로 이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분석적 방법은 현대문명의 기본방법이다. 과학을 부정하는 것은 현대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기능주의는 인간과 공간의 대응에 있어서 그 실현의 기술적 방법을 분석적으로 파악한 태도 방법을 지칭한다.

다음에 남은 과제는 어디까지나 생체요 인격체인 인간의 표현의욕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분석적으로 파악한 기능을 치밀하게 결합시킴으로써 생명력을 강하게 하여 주는데 있다. 예를 들어 근육과 피부에서 보면 근육은 운동량의 점에서 피부는 의제와의 보호의 점에서 서로 functional하게 되어 있는 것이 생물로서 보다 강하다.

functional한 것은 그 자체가 곧 생명이 아니지만 생물의 각부분이 보다 능률적인 상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은 생명으로서 강함을 보증한다는 말이다. 생명의 강약은 function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와같은 생물에 있어서는 많은 element의 physical한 상관성은 건축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구조, 음향, 환기, 난방, 조명 등 element가 치밀하게 결합해 있을 수록 건축은 기능적이고 생명력에 충익하다. architect는 이렇게 다양화한

기능을 유기적 통일체로서 결합시켜야 하고 또한 여기에 명확한 목적과 vision을 제시할 수 있는 생명체로서의 총합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Frank Lloyd Wright (1869~1959)나 Alvar Aalto (1898)의 유기적 건축(Organic Architecture)의 개념은 기능주의를 그 근본으로 한 통일체로서의 공간을 재구성하여 인간화한데서 그렇게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이 유기적인 결합체로서의 기능주의는 현대건축이 획득한 귀중한 공유재산이요, 조형과정에서의 공통분모이다.

이 기능주의란 공통분모 위에 쓰여질 분자로서의 요소는 각지방의 endimical한 personality와 originality이다. 즉 그 지방 건축문화의 정신적 지주가 될 역사와 전통과 풍토를 기초로 한 이념의 토착은 표현의욕을 풍성하게 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새로운 민족의식과 통일의 상징을 발전시키는데, 이들 상징은 한편으론 기존 전통으로부터 또 한편은 토착전통과 광범한 국제구조와의 격돌로부터 비서구 국가의 경우는 특유의 서구전통과의 격돌로부터 형성되고 있다」고 S. N. Eisenstadt 박사는 「전통적 구조가 근대화 과정을 어떻게 돕는가」에서 지적하고 있다. 현대건축의 값어치는 국제화한 기능주의를 공통분모로 한 그 지방의 표현의욕과 정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Le' Corbusier (1965년 8월 27일 서거)의 작품활동과정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U.N. Building (1950)에서 철과 유리의 조형을 주장한 그가 「마르세이유」의 “주거 단위”(United' habitation 1953)에서는 콘크리트의 조상적(彫塑的)조형을 만든 것은 미국의 도시나 사회가 고도의 공업기술로 이룩된데 대하여 불란서의 풍토나 생산기구에 알맞은 까닭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인도의 「판자브」 신천도(新川都) “산디가르” 계획 (Project of chandigarh)에서 더욱 강하게 입증되었다. 더우기 「론산」의 교회당(Chapel of ronchamp 1956)은 게(蟹)의 등딱지를 image로 하여 만들어진 아주 자유로운 예술작품으로서 벌써 기능주의를 소화하고 그 지방의 토착물로 승화시킴으로써 인간화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멕시코」, 「이태리」, 북구삼국, 「부라질」, 「이스라엘」, 「남아연방」, 일본 등 세계의 곳곳에서 도시건설, 국토건설의 energy로 되어 미래의 vision으로 들먹거리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현대건축의 공통분모와 분자의 상태는 어떠한가? 기능주의 건축이나 국제건축양식이란 말은 8.15해방과 더불어 좀더 확실하게 도입되어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온 것만은 사실이나 산업발전, 생산기구의 발달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

고 있는 이 건축형태는 국토의 양단, 6.25전란 등 치명적인 타격으로 의곡 내지 피상적인 것으로 일반화된 점 불소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제가 끼친 영향력이다. 일본이 근대 개화기로 한창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일 때 서양 건축사상에 보면 일대 혼란기였다. 이것은 소위 절충주의 건축(Eclecticism)이라 이름하여졌다. 절충주의는 근대건축으로 비 약하기 위한 진통기이다. 예술사상에서 보면 Dadaism의 시기에 해당되리라. Dadaism이란 한 질서가 무너지고 다른 새로운 질서가 이룩되기 위한 과도기적 현상이다. 더 쉽게 풀이하면 「트람프」의 한 「게임」이 끝나고 다음 「게임」을 진행하기 위하여 골고루 되쉬는 이런 양상을 이야기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진 절충주의 건축과 민족문화 말살정책에 짓눌린 식민지 공업교육의 편견으로 우리의 표현 의욕은 성장하지 못하였고 건축의 목적의식과 이념의 불모지가 되어졌던 것이다.

Walter Gropius가 Bauhaus를 창립한 1919년에 우리는 3.1운동이란 민족 대수난을 겪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 건축계의 시간적 격차를 단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주택사정은 거의 자연발생적 비판에 가까우면 주생활의 최저목표인 침식공간의 분리마저도 요원한 실정 이요 아직도 건축을 목수의 하는 일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대중 속에 우리는 위치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건축가 들이 확고한 신념 없이 건축활동에 임하는 경우가 많고 더우기 학생들은 건축창조의 시발점에서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현대건축이 너무 다양하며 그 발전상태도 급진적이고 또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의 특수한 사정이 작용되어 속에 흐르고 있는 통일된 법칙성을 발견하기 전에는 참된 건축의 자태와 본질을 파악하기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라고 정인국(鄭寅國)교수는 술회하고 있다.

현대는 전세기의 수십년이 하루에 이루어지는 빠른 「템포」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의 현실이 있다. 건축조형의 공통분모로서 유기적 기능주의를 빠르고 올바르게 연구소화시키고 그 분자로서는 우리의 역사와 전통의 문화적 유산을 끈기 있게 파헤쳐 표현의욕이 발붙일 소지를 마련하여 이것을 현대건축의 조형감각으로까지 승화시킬 때 우리의 현대건축도 세계의 무대에서 작광을 받을 것이요 먼 훗날 세계사의 거울에 비쳐 보아 부끄럽지 않으리라.

뚜렷한 목적의식과 여기에 수반되는 노력이 부단히 존재한다면 우리의 건축이념도 좀더 가능한 vision을 제시하여 주리라 믿는다.